

# EYA NEWSLETTER

## ENGLISH TITLES

### FICTION

제목 : BLACKTOP WASTELAND

가제 : 나이트 드라이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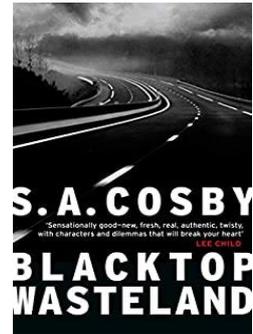
저자 : Shawn Cosby

출판사: Headline

발행일: 2020년 7월 14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일반소설



\* "진실하고 신선한 이야기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물과 딜레마가 어우러져 있는 소설" - 베스트셀러 『Blue Moon』의 저자, 리 차일드

\* "독창적인 문체와 분위기를 가진 이 소설은 바로 오늘날을 위한 범죄 소설이며 손 코스비는 아마 우리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보게 될 작가가 될 것이다." - 『Blackout and Miami Midnight』의 저자 알렉스 세구라

버그는 성실한 수리공이자 다정한 남편이며 가정적인 아버지이다. 그러나 그는 한때 미국 동부 최고의 '휠맨', 곧 도주 차량 운전사로 이름을 날렸다. 그는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지만,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되자 다시금 어둠의 세계를 기웃거리게 된다. 영화 <오션스 일레븐>과 <드라이브>가 만난 것 같은 소설로, 빈곤과 인종 문제, 과거의 그림자로부터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이다.

버그가 자신의 자동차인 '더스터'에 시동을 걸면 엔진은 언제나 사자의 포효 같은 소리가 났고 곧 용과 같은 움직임을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버그의 운전 솜씨의 비밀은 엔진이 아니라 바로 버그가 운전하는 태도에 있었다. 그는 어떤 잡생각이나 두려움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차선에 맞춰 운전하는 것에만 집중했다. 하지만 가끔 그는 개인적인 일로 운전을 하거나 다른 범죄 집단 멤버들을 위해 운전을 할 때마다 종종 돌아가신 아버지의 환청을 듣곤 했고 그 때마다 시체도 없이 사라진 아버지처럼 인생을 끝내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했다. 버그가 가진 놀라운 운전 실력은 그에게 축복이자 저주였으며, 버그 자신 역시 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버그가 범죄 집단과 어울려 일을 하게 된 건 고무 밴드 공장에서 일하던 어머니가 은퇴하기 2년 전 갑작스럽게 유방암에 걸린 지 바로 한 달 뒤부터였다. 버그는 삼촌 보니의 소개로, 역시 뛰어난 실력을 가진 운전수였지만 어느 날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자신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필리’라는 작자의 운전수 일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열 입골 살로 세상 물정에 대해 아무 것도 아는 것이 없었고 그냥 시키는 대로 일만 하다가 강도 범죄에 연루되게 된 것이었다.

가정을 꾸리고 나서도 종종 사촌 켈빈과 함께 남자들이 모여 벌이는 한밤의 질주에 참여하곤 했는데 그렇다고 예전과 같이 위험한 일에는 결코 발을 들이지는 않았고 어떻게든 자동차 수리점을 잘 운영해 보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어린 아들 둘과 곧 대학 진학을 앞둔 큰 아들이 있었고 자신이 버는 돈과 아내 키아가 호텔에서 하루 여덟 시간 동안 일하며 벌어들인 돈을 합쳐도 살림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그는 몇 달째 밀린 월세라도 내기 위해 자동차 경주에 참여한다. 그는 누구보다 월등한 운전 솜씨를 가졌고 이번에도 경주에서 승리하지만 같이 경주에 참여한 사람이 돈을 주지 않는 바람에 빈손으로 집에 돌아온다. 아침 잠에서 깬 그의 아내 키아는 버그에게 어두운 얼굴로 이제는 정말 밀린 빚을 다 갚아야 한다고, 버틸 수 있을만큼 버텼다고 말한다. 자동차 정비소에 있는 기계들을 좀 내다팔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버그를 보며 키아는 버그가 다시 그의 삼촌 보니에게 돌아가 또 나쁜 일들에 연루될까봐 두려워진다. 십대에 버그를 만나 15년을 넘게 부부로 살아온 키아는 남편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걱정이 가득한 키아에게 버그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거라며 위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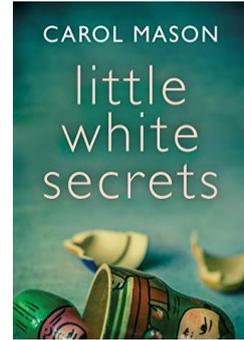
버그와 키아가 일을 하러 간 사이 버그의 어린 두 아들들은 키아의 언니네 집에서 머물며 이종 사촌들과 어울려 시간을 보낸다. 버그 역시 어린 시절 고모의 집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며 사촌 형제인 켈빈과 그의 형 카든과 어울렸는데 카든은 7년 전, 클럽에서 만난 여자들과 모텔에 갔다가 그곳에 침입한 강도들에게 살해당하고 말았다. 버그는 자신의 아들들만큼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다. 그는 자신의 환경과 흑인이라는 인종적 한계, 사회의 낮은 기대가 자신과 사촌들을 밑바닥 삶으로 이끌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버그는 얼마 후 자신의 어머니가 보험 문제 때문에 병원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면 곧 요양원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결국 버그는 점점 궁지로 몰리게 되고 생애 마지막으로 보석 가게 습격에 참여하기로 하고 피 냄새와 휘발유 냄새가 뒤섞인 현장으로 향한다. 하지만 일이 잘못되는 바람에 그는 자신의 목숨은 물론 아내와 아들들까지 모두 잃게 될지도 모르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고 만다. 그는 과연 이 끔찍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세련되고 스타일리시한 남부 누아르이다.

#### <저자 소개>

숀 코스비(Shawn Cosby)는 버지니아 남동부 출신의 작가로 최근 Anthony Award에서 최우수 단편 소설을 수상했다.

제목 : LITTLE WHITE SECRETS  
가제 : 우리가 행복해 보이나요?  
저자 : Carol Mason  
출판사: Lake Union Publishing  
발행일: 2020년 5월 1일  
분량 : 329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영국 아마존 3 위, 미국 아마존 7 위, 오스트레일리아 아마존 3 위

\* "숨을 멎게 만드는 결말. 아무리 깊이 물어도 결국엔 항상 표면으로 드러나는 비밀에 관한 이야기" - 『The Wicked Sister』의 저자, 카렌 디온

한 장의 아름다운 가족 사진, 사진 속 활짝 웃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하고 화목해 보일 것이다. 이 책의 주인공 에밀리 로지 역시 겉으로는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가정에서 어머니이자 아내이다. 하지만 자꾸 어긋난 길로 들어서면 딸에 대한 걱정으로 그녀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다. 엄마와 자녀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비롯한 다양한 인간 관계의 이면과 생생한 인물들의 미묘한 감정선을 깊이 그려내는 소설이다.

영국 작은 시골 마을의 예쁜 집에서 단란하게 살아가는 에밀리의 가족은 더없이 행복해 보인다. 에밀리는 대학 교수이고, 남편 에릭은 런던에서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다. 그들에게는 두 자녀가 있는데 열여덟 살인 첫째 아들 대니얼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테니스 스타였고, 수줍음을 많이 타는 열네 살 딸 사라는 여태껏 사고 한 번 친 적 없는 온순한 아이였다. 특히 에밀리는 대니얼을 훌륭한 테니스 챔피언으로 키워낸 대단한 엄마로 덩달아 유명했으며, 아들과 함께 전세계로 투어 경기와 해외 전지 훈련을 다니는 동안 사라에게는 큰 관심을 쏟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듯하게 자라주는 사라에게 고마울 뿐이었다. 완벽해 보이는 가정 생활이었지만, 에밀리는 때때로 이유 모를 공허함과 씁쓸함을 느끼곤 했다.

그로부터 6 개월 후, 2018 년 8 월, 에밀리는 반려견 오티스조차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아주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에밀리는 창문 밖으로 어렴풋이 비치는 두 사람의 그림자를 보았다. 에밀리네 집은 나무들 사이에 가려져 비교적 눈에 잘 띄지 않는 집이었고 이웃과 가깝게 지내는 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대체 누가 자신의 집을 찾아온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문 밖에는 살짝 비를 맞은듯한 두 여성이 서 있었는데 그 중 한 여성은 완전히 창백하게 질려 있는 얼굴을 하고 있었고 에밀리를 보자마자 아무런 인사도 없이 투명스럽게 텅 비어 있는 교회 모금함 같은 것을 그녀의 눈 앞에 내밀며 가정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모금에 참여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에밀리가 얼마 전 복권을 사느라 동전을 다 쓴 바람에 지금 가진 동전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자 그 여자는 다시 동전 말고 지폐도 받는다면 다시 모금함을 들이밀었다. 에밀리가 다

시 그녀에게 지금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 많이 없다고 말하자 그 여자는 에밀리를 압박하듯 쳐다보며 관찰하기 시작했다. 에밀리는 그녀에게 압도 당하는 기분이 들었고 자신과 남편은 이미 여러 곳에 기부나 후원을 하고 있다며 자신도 모르게 서둘러 변명하듯 이야기를 꺼냈다. 하지만 다행히도 곧 어색한 분위기는 다행이 강아지 오티스가 그 여자의 곁에 있던 한 소녀에게 다가가 반갑다는 시늉을 하는 바람에 조금 누그러졌다. 그 소녀는 그 여자의 딸로, 매끈한 피부에 엄마보다 큰 키를 가지고 있었고 아마도 사라의 또래로 보였다. 그리고 그 때 갑자기 그 소녀는 누군가에게 친근하게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에밀리 뒤에 수줍게 서있던 사라였다. 사라 역시 그 소녀의 이름인 '베타니'에게 인사했고 그 때 마침 집에서 나온 고양이 주니퍼를 함께 어루만지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당황한 에밀리는 순간 자신에게 가까이 온 베타니의 싸구려 향수를 맡았고 왠지 모를 불쾌감을 느꼈다. 또한 에밀리는 베타니 엄마의 웃음 속에서 마치 자신을 경멸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에밀리는 사라가 제발 베타니와 친한 사이가 아니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들이 떠날 때 왜 옆집에는 찾아가지 않는지 수상한 느낌이 들었다.

한편 에밀리는 오랫동안 실직 상태였다가 6 개월 전부터 런던에서 일하며 주말에만 돌아오는 남편 에릭에 대해 생각하며 최근 들어 그가 자신에게 숨기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변하고 있는 것은 남편 에릭만이 아니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돌아온 에밀리는 사라가 웬일로 친구와 함께 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바로 베타니였다. 베타니는 거친 말들을 자신 앞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했고 인형 같이 생긴 얼굴과는 달리 지저분하고 예의가 없는 아이였다. 에밀리는 조용하고 예민한 사라가 어쩌다 베타니 같은 아이와 어울리게 되었는지 둘의 관계가 탐탁지 않았다. 하지만 사라는 베타니와 어울리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졌고 집에서 늦은 시간에 몰래 빠져나가거나 심지어는 약물에까지 손을 대는 것 같았다. 뿐만 아니라 에밀리는 오랫동안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 있던 에릭이 자기 몰래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남편의 비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에밀리의 가족과 베타니 그리고 베타니의 엄마 사이에는 대체 어떤 비밀이 얽혀 있는 것일까? 미묘한 가족 관계와 여성성과 모성에 대해 심도 있게 그린 스릴러이다.

#### <저자 소개>

캐롤 메이슨 (Carol Mason)은 영국 북동부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10 대 시절 그녀는 영국의 국립 스마일 프린세스 (National Smile Princess)로 선정되었으며, 이후 외교관 교육을 수료했고 호텔 접수원 및 광고 카피라이터로 활동한 바 있다. 현재 그녀는 남편과 함께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살고 있다.

제목 : Someone Else's Secret

가제 : 그 해, 여름 - 영원한 상처를 남긴 밤

저자 : Julia Spiro

출판사: Lake Union Publishing

발행일: 2020년 7월 1일

분량 : 367 페이지

장르 : 일반소설, 여성소설



\* “아무런 선택권이 없을 때, 진실을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마음을 따르는 것이 불가능 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탐구이자 더 이상 어린 여성이 아닌 한 여성이 이전의 자신의 자아와 싸우기 위해 힘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 그린 이야기” -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인 『This Is How It Always Is』의 로리 프랑켈

\* “계급, 욕망, 우리가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탐구하는 두 여성에 관한 이야기” - 『The Gilded Razor』의 저자, 샘 랜스키

2009년,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야심찬 린제이는 구직난을 겪던 중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유력한 데커 가문의 보모로 일하기로 한다. 린제이는 데커 집안의 맏딸인 조지와 특별한 유대 관계를 맺게 되지만 어느 날 끔찍한 일이 일어나면서 둘의 우정도 산산조각이 나고 만다. 그리고 그 후 오랜 시간 동안 두 사람은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철저히 침묵을 지켜야만 했다. 두 사람은 과연 고통스러운 과거와 마주할 수 있을까? 워너브라더스 영화사 부사장 출신 작가의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묘사와 구성이 돋보이는 소설이자, 섬세하고 신중하게 미투 세대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2009년은 미국의 경제 사정이 가장 좋지 않았던 때 중 하나였다. 예술을 전공한 린제이는 보스턴의 미술관들 중 한 곳에서 일하기를 바라고 있었고 언젠가는 큐레이터가 되기를 꿈꾸고 있었다. 당시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인턴 자리를 찾고 있었지만 결국 무급 인턴 자리조차 얻지 못했다. 머지않아 폐쇄적인 보스턴 예술계에 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막강한 연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던 어느 날 린제이는 학과 교수를 통해 데커 가족을 소개 받았다. 데커 가족은 미술 박물관의 이사진이었고 올 여름, 유명 여름 휴양지 메사추세츠, 케이프 코드에서 자신의 막내 아들을 돌봐줄 보모를 찾고 있었다. 아이들의 아버지인 조나단은 얼마 전 그들을 떠난 보모 대신 린제이가 여름 동안 다섯 살 아들 버티와 열 네살 딸 조지를 돌봐주면 가을쯤 보스턴의 미술관들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겠다고 제안했다. 숙식까지 완벽하게 제공되는 그곳에서 린제이가 할 일은 그저 유독 어른들을 잘 따르는 버티를 테니스 캠프로 데려가 아침을 먹이고 오후에는 비치 클럽으로 데려가는 것 정도뿐이었다. 예술계에서 성공하고 싶고, 생활난에 시달리던 린제이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일을 시작하자마자 린제이는 결코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바로 알아챘다. 까칠한 성격의 첫째 딸 조지는 린제이에게 쉽게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았고 늘 통명스럽게 굴었다. 하지만 린제이는 한결 같이 그녀에게 살갑게 대했고 절대 먼저 친해지길 강요하지 않았다. 사실 조지는 어느 침대들과 마찬가지로 로맨스를 꿈꾸고 있었지만, 정작 현실은 이번 여름을 함께할 친구도 하나 없었고, 젊고 매력적인 린제이를 은근히 질투하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캐롤은 완전히 아이들을 방임하고 있었고 아이들에게 무미건조하게 대하는 유형의 엄마였기 때문에 버티를 돌보는 일은 전적으로 린제이의 몫이었다. 때문에 린제이는 버티가 깊은 잠에 든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되어 밖으로 나가 자유 시간을 즐길 수 있었다.

얼마 후 린제이는 예상외로 조지와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당시 조지는 카페에서 일을 시작하고 아침 점심으로 카페에 들르는 브라이언이라는 남자에게 푹 빠져있었다. 브라이언의 가족은 데커 가족보다 훨씬 부유하고 힘 있는 집안으로 린제이가 가을에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연줄이었다. 또한 그는 린제이의 친구 조아나의 남자 친구이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린제이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조지가 브라이언과 함께 있던 중 키스까지 하려던 장면을 목격했고 아직 미성년자인 조지를 보호하기 위해 서둘러 그 자리에서 조지의 손을 이끌고 집까지 데려왔다. 조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로맨스를 망친 린제이를 원망하며 울고 불고 난리를 피웠고, 난감해진 린제이는 다시 밖으로 나와 아침 그곳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던 조아나가 연 파티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새로 사귄 남자친구 딜런과 시간을 보냈다.

반면 조지는 훌쩍이며 밖에 보이는 등대를 바라보다가 무언가에 홀리기라도 한 사람처럼 등대까지 걸어 갔다. 그리고 그 곳에서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이 짝사랑하고 있던 브라이언이 린제이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둘러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왔다. 그 후 린제이와 조지는 그 일에 대해 침묵하기로 했지만 10년이 지난 어느 날 두 사람은 과거의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다. 한 사건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 또 과거와 마주하는 일에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보여주는 큰 울림이 있는 소설이다.

#### <저자 소개>

줄리아 스피로 (Julia Spiro)는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후 그녀는 로스 앤젤레스에 살면서 거의 10 년 동안 영화 산업에서 일한 바 있다. 이 책은 그녀의 첫 소설이다.

제목 : SLOUGH HOUSE BOOK SERIES 4-6: SPOOK STREET / LONDON RULES / JOE  
COUNTRY

가제 : 슬루 하우스 시리즈 4, 5, 6권

저자 : Mick Herron

출판사: John Murray

장르 : 추리



\* 설록의 계보를 잇는 인기 추리물!

\* THE CWA IAN FLEMING STEEL DAGGER 수상작

\* “믹 헤론은 이 시대의 ‘존 르카레’이다.”- 발 맥더미드

\* “믹 헤론은 위대한 작가이며 아직 이 작가의 책을 읽어 본적이 없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것이다.” -마크 빌링햄

#### 4권: Spook Street (스파이의 거리) / 출간일: 2017년 1월 9일, 분량: 321페이지

슬루 하우스는 실패한 영국 정보요원들이 좌천되어 오는 곳으로 이곳 요원들은 그저 하릴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거구의 몸집에, 철학적이며 술에 빠져 지내길 좋아하는 제이슨 램이 이곳의 책임자였으며, 나머지 요원들 역시 오합지졸이었다. 리버 카드라이트는 가족의 전통을 따라 정보 요원 되긴 했지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은 바람에 일에 문제가 생겨 이곳에 왔고, 캐서린 스탠디쉬는 점점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있었다. 또한 셜리 덴더는 겨우 코카인 중독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참이었고 로데릭 호는 별로 존재감은 없어 보였지만 뛰어난 기술과 명석한 두뇌를 가진 IT 천재였다. 1권에서 리버 카드라이트는 동료들과 더불어 한 젊은 남자가 납치된 사건과 한 기자의 사건을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 다시 인생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있는 중이었다. 한편 그는 냉전 시대 피 바람이 부는 국제 무대에서 활동했던 자신의 할아버지가 이제는 바지 입을 방법조차 잊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정보 기관에서 보낸 감시꾼들이라고 의심하는 할아버지가 걱정되기 시작했다.

리버의 할아버지 데이비드 카드라이트는 리버가 어릴 때 떠난 그의 어머니를 대신해 리버를 키웠다. 리버는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하지만 이제 그는 80대에 고령의 나이로 혼자 살고 있었으며 리버는 데이비드의 날로 심해지는 건망증이 걱정이 되었다. 그가 어쩌면 실수로 이웃이나 단골 가게 주인에게 국가의 비밀을 무심코 털어놓을지도 몰랐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그는 아직까지 총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는 더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지도 모를 일이었다.

곧이어 리버에게는 곧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난다. 그것은 붐비는 한 쇼핑 센터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무고한 시민 마흔 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일어난 것이다. 리버와 슬루 하우스의 요원들은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과연 누가 그 사건의 배후에 있는지 알아내야만 한다!

**5권: London Rules (런던 규칙) / 출간일: 2019년 8월 9일, 분량: 352 페이지**

5권은 다양한 패러디를 통해 브렉시트를 비롯한 현 영국 상황을 변주한다. 그 중심에는 한번도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적은 없지만 스파이들이라면 누구나 종교 경전을 따르듯 반드시 지키고 있는 '런던 규칙'이 있다. 어느 날 한 개발 도상국이 공격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 처음엔 모두들 이 공격의 배후에는 IS 무장 단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영국 정부와 정치인들은 서로 경쟁하듯 사건을 파헤치고 있는 클로드 웰런 의원에게 그 답을 요구하지만 지금껏 이 책 시리즈 내내 존재감이 미미했던 IT 천재 로데릭이 이 사건의 중요한 해결사로 떠오른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영국의 대표적인 브렉시트 포플리스트 정치인인 '나이젤 파라지'를 정확히 연상시키는 의원 '김발'이 등장해 영국 정보부를 향해 맹렬한 비난을 쏟아 부으며 이 소설은 일순간 흥미로운 정치 풍자 소설 같은 면모도 내보인다. 이 소용돌이 속에서 제이슨은 정보부 부 책임자인 다이애나의 눈엣가시가 되어 자리를 내놔야 할지도 모르는 위협에 시달리게 되고 다른 요원들 역시 우울증이나 중독과 같은 개인적인 갈등 상황에 놓이지만 슬러 하우스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저력을 되찾게 된다.

**6권: Joe Country (조 컨트리) / 출간일: 2020년 1월 6일, 분량: 352 페이지**

어느 날 웨일즈의 한 헛간에서 시체가 발견된다. 그리고 이 시체가 슬러 하우스의 일부 요원들과 관련돼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다. 한편 리버는 할아버지 데이비드를 떠나보내고 장례식을 치렀고, 슬러 하우스의 또 다른 요원인 루이사 가이는 자신과 미묘한 관계가 있었던 동료 요원 민 하퍼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루이사는 째름한 마음으로 민의 아내를 만난다. 민의 아들 루카스가 실종되었기 때문이었다. 루이사는 민을 위한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하고 루카스를 찾아내기 위해 웨일즈까지 그를 추적한다. 또한 슬러 하우스의 새로운 요원 레흐 원스키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자신의 경력과 인생을 망친 사람이 누군지 찾기로 결심한다. 다양한 인물들의 다채로운 이야기와 블랙 코미디, 신랄한 정치 풍자, 때로는 냉철한 이성과 감성이 한데 어우러져 극적인 재미를 만들어 내는 스파이 소설이다.

**<저자 소개>**

믹 헤론 (Mick Herron)은 슬러 하우스 시리즈로 CWA Daggers에 여섯 번이나 후보에 올랐으며 그 중 두 번 수상했고, Theakston Old Peculier Crime Novel of the Year 후보에 두 번 올랐다. 또한 이 시리즈 중 첫 시리즈인 『Slow Horses』는 데일리 텔레그래프 선정 역대 최고의 스파이 소설 20권 중 한 작품으로 선정되었으며, 『Joe Country』는 선데이 타임즈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올랐다.

## NON-FICTION

제목 : FRILUFTSLIV

가제 : 프리루프트슬리브: 자연에서 발견하는 노르웨이식 행복법

저자 : Oliver Delorie

출판사: White Lion Publishing

발행일: 2020년 1월 28일

분량 : 158 페이지

장르 : 처세



### \* '휘게'를 넘어 '프리루프트슬리브'의 삶을 살고 있는 저자가 알려주는 노르웨이식 행복법

덴마크어, 노르웨이어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또는 혼자서 보내는 소박하고 여유로운 시간, 일상 속의 소소한 즐거움이나 안락한 환경에서 오는 행복을 '휘게 (hygge)'라고 한다. 하지만 이 단어 말고도 노르웨이어에는 오직 노르웨이인들만 사용하는 아주 특별한 단어가 있다. 바로 '프리루프트슬리브(FRILUFTSLIVE)'라는 단어로, 사전적 의미로는 '자유로운 야외 생활'이지만 휘게와 마찬가지로 다른 외국어들로는 정확히 표현하기 힘든 깊은 문화적 함의를 담고 있다. 휘게와 프리루프트슬리브는 둘 다 어떤 감정적 고양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휘게가 아늑함과 인간관계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프리루프트슬리브는 자연과 바깥 세상과의 역학에 중점을 두고 있는 단어이다. 한 마디로 휘게가 가진 철학은 집을 이 세상 가장 아늑한 성소로 바꾸는 기쁨을 뜻하지만, 프리루프트슬리브는 집이 아닌 대자연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장려하는 뜻을 담고 있다.

하지만 프리루프트슬리브는 단순히 자연에서 캠핑을 자거나 높은 산을 정복하고 사막의 모래 언덕을 내달리는 것이 아니며 전문 산악 가이드나 GPS 장치가 필요한 행위를 뜻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1859년 노르웨이의 극작가 헨리크 입센이 쓴 한 시에서 그는 바로 이 프리루프트슬리브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바깥 세상으로 나아가 자연과 연결되고 싶은 고유한 욕구'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자 오롯이 즐길 수 있는 고독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진화 생물학자인 한스 겔터 교수는 진정한 프리루프트슬리브는 자연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진정한 나의 집을 찾는 것이며, 이 생각에 입각해 자유롭게 자연 속을 방랑하며 다닐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르웨이의 야외 레크리에이션 법규에 잘 나타났듯이 모든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는 현지인과 야생 동물을 모두 존중하는 조건 하에 원하는 곳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걷고 야영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이는 노르웨이어로 '알레만스레텐(allemannsretten)', 즉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노르웨이에서는 도시에 사는 주민들조차도 피오르드 산맥과 공원, 삼림 가까이에서 언제나 프리루프트슬리브 상태에 들어 갈 수 있다. 이 책은 노르웨이나 스칸디나비아 지역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도 프리루프트슬리브의 기쁨을 최대한 누리며 정신적, 육체적, 영적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책이다.

#### <목차>

서문

1장. 그냥

2장. 놀기

3장. 생각해보기

4장. 체험해보기

5장. 소박한 즐거움

참고 자료들

사진 출처

#### <저자 소개>

올리버 드로리 (Oliver Delorie)는 『Wabi Sabi: Finding Beauty in Imperfection and Shinrin-Yoku: The Healing Art of Forest Bathing』를 집필한 후, 알래스카 광야에서 거친 바람이 부는 스칸디나비아의 섬을 여행 한 후 캐나다로 돌아와 프리루프트슬리브 삶을 실천하고 있다.

제목 : AT HOME ON AN UNRULY PLANET

가제 : 100년 뒤에도 지구에서 살 수 있을까?: 기후 재앙에 대처하는 세계의 모습

저자 : Madeline Ostrander

발행일: 2021년 예정

분량 : 약 300 페이지

장르 : 환경, 사회



**\* 점점 더 심해지는 지구 온난화와 기후 재앙이 계속되는 이 세상에서 지구와 내 삶의 터전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피할 수 없는 재앙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대처해야 할지 생각해보게 하는 책**

매년 겨울이 끝나면 봄이 오고 여름과 가을이 차례로 오지만 빙하는 점점 빠른 속도로 녹고 있고 땅의 열기는 매해 기록을 갱신하며 더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만약 이런 변화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2000년대 초 호주 출신의 학자 글렌 알브레히트(Glenn Albrecht)는 새로운 슬픔, 즉 이름이 없는 슬픔에 대해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한 때는 목가적인 풍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광업 개발로 인해 황폐해진 퍼스 지역에 아름다운 나무들이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발견했다. 이 곳에 살던 주민들은 자신들이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이 곳에서 서서 처참한 광경을 바라보며 지독한 향수병에 시달렸다. 알브레히트 박사는 이 향수병을 두고 '솔로스탈지아(solostalgia: 한 때 집으로 느꼈던 곳이 더 이상 친숙하거나 편하게 느껴지지 않아 발생하는 심리적 아픔, 특히 자연 환경적 변화 때문에 느끼게 되는 고통)'라고 표현했다.

과학 전문 저술가이자 편집자인 이 책의 저자 매들린 오스트랜더는 처음 솔로스탈지아에 대해 듣게 된 후 이 고통이 곧 전염병과 같은 비율로 전세계 사람들 사이에 번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저자는 기후 변화에 대한 경고가 담긴 수많은 자료들을 숙지하고 있었고 화석 연료 대신 지구 온난화 현상을 늦추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예를 들어, 스마트 그리드, 바이오 숲, 조류 기반 연료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그러나 저자가 그 무엇보다 간절히 바랐던 것은 후손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빨리 변화하고 있는 행성에서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 이 곳에 살고 있는 우리부터 먼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따라서 저자는 솔로스탈지아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게 느끼고 있는 미국으로 떠났다. 그녀는 이 여행에서 어쩔 수 없이 불과 연기와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며 살아가고 있는 워싱턴의 메도우 밸리, 마을 전체 사람들이 녹고 있는 빙하를 피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된 알래스카. 30년 안에 물에 완전히 잠기게 될 운명을 앞두고 있는 미국 역사의 중심지 아나폴리스, 마을 공동체 자체에서 석유 대신 경제적이고 시민 중심적인 미래 자원을 사용을 촉구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리치몬드까지 찾아가

솔로스텔리아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했다.

엘리자베스 콜버트와 레베카 솔닛을 연상시키는 분위기의 문체를 통해 이미 진행 중인 환경 변화가 점점 극심화 되고 있는 이 격변의 시대에서 우리 인류와 우리가 집이라고 믿고 있는 이 땅의 관계는 무엇인지, 이러한 변화에 직면하고 적응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평화롭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책이다.

### <목차>

목차

1 부 : 위협에 처한 집

제 1 장 : 불

제 2 장 : 향수병

제 3 장 : 홍수 (미국 아나 폴리스)

제 4 장 : 첫 번째 집

제 5 장 : 해빙 (알래스카)

제 6 장 : 폭발 (캘리포니아, 리치몬드)

2 부 : 다시 지은 집

제 7 장 : 불 타고 있는 집

제 8 장 : 물가에서 생활하는 것 (Annapolis, MA)

제 9 장 : 적응

(이하 생략, 총 12장으로 구성)

### <저자 소개>

매들린 오스트랜더 (Madeline Ostrander) 시애틀에 거주하며 프리랜서 기자 및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는 주로 과학, 환경 및 기후 변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NewYorker.com, Science, PBS NOVA Next, Seattle Met Magazine, Al Jazeera, The Nation, The Sun Magazine 및 High Country News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제목 : MAYO CLINIC STRATEGIES TO REDUCE BURNOUT

가제 : 의사도 케어가 필요합니다: 의료인 번아웃을 위한 마요 클리닉 솔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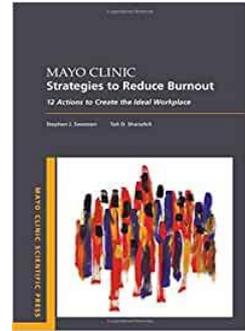
저자 : Stephen Swensen, Tait Shanafelt

출판사: Oxford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20년 2월 28일

분량 : 328 페이지

장르 : 경영



\* 신빙성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용한 개념과 단계별 지침을 통해 의료계에 종사하는 전문인들이 직업적 성과를 높이고 일의 기쁨과 목적 의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책!

\* "이 책은 전 세계 건강 관리의 다음 큰 도전, 즉 일하는 사람들의 복지에 대해 진단해보고 치료를 위한 방침을 제공하는 책이다."- 스코틀랜드 Healthcare Quality and Strategy의 의장, 제이슨 라이치 교수

초유의 바이러스 사태로 전 세계의 의료인들이 불철주야 고생하며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종사자들의 이런 번아웃 현상은 건강한 사람들이 이타심에 에너지와 열정을 과도하게 쏟기 때문이라고 오해 받곤 한다. 하지만 이들의 번아웃 증상 역시 다른 직업군과 마찬가지로 업무적 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이 문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여 도움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의료계 종사자들이 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타인의 복지에 기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의료계 종사자들이 직접 겪었던 이야기들에 대한 책으로 번아웃과 고통, 동정심, 피로, 도덕적 상처, 인지부조화에 대한 이야기만 곱씹는 것이 아니라 직업적 성취, 복지, 기쁨 그리고 동료애에 대한 희망적인 이야기이기도 하다. 먼저 이 책의 원제에 등장하는 'Mayo Clinic'이라는 곳은 임상 실습,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비영리 조직으로 치료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전문적이고 전인적 치료를 제공하는 단체로 이 책의 공 저자 중 한 명인 스티븐 스웬슨 교수가 선임 연구원이자 명예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기도 하다.

이 책에서 스웬슨 박사와 공 저자인 타이트 샤나펠트 박사는 이상적인 의료계 업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강 관리 전문가와 행정 리더가 협업하여 긍정성을 높이고 부정성을 밀어내는 이상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들은 '그룹 구성원들 사이에 동지애, 열정, 헌신에 대한 합일된 정신'을 기반으로 구성원들의 책임감과 충성도, 공통의 관심도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에서 두 저자는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환자 중심적인 사려 깊은 의료 업무 시스템에 대한 소개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될 건강 관리 전문가들을 위한 복지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물들을 보여준다. 또한 품질, 부서 운영, 리더십 및 조직 개발, 관리, 안전한 안식처 및 관리팀에 대한 경험과 의료업계의 최고 리더들, 건강 관리

책임자, 수석 조사관, 선임 동료, 이사회 이사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공한다. 환자의 복지를 위해 초석이 되는 의료 관계 종사자들을 위한 업무 환경 조성 및 복지에 관한 전문서이다.

### <목차>

섹션1. 기본

1장. 서문

2장. 전문가들의 번아웃이 낳은 결과

3장. 번아웃과 업무

4장. 사업적인 경우

5장. 건강 관리 소모로 인한 질적인 부족 상태: 번아웃의 근본적인 원인 통합하기

6장. 공동체 정신을 도모하기 위한 청사진

7장. 이상적인 업무적 요소들

8장. 의회에서 고위급 차지하기

9장.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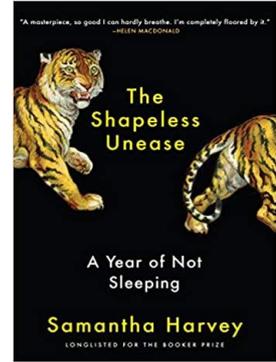
(이하 생략, 총 4 섹션 36장으로 구성)

### <저자 소개>

스티븐 J. 스웬슨 (Stephen J. Swensen) 의학 박사는 전 Mayo Clinic의 리더십 및 조직 개발 이사, 건강 관리 개선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 및 Mayo Clinic 의과 대학 명예 교수이다.

타이트 샤나펠트 (Tait Shanafelt) 의학 박사는 스탠포드 의과 대학의 학과 부의장이자 복지 담당자이다.

제목 : THE SHAPELESS UNEASE  
가제 : 잠을 잃어버린 밤들: 불면의 기록  
저자 : Samantha Harvey  
출판사: Grove Press  
발행일: 2020년 5월 12일  
분량 : 192 페이지  
장르 : 회고록



- \* 아마존 선정 “이달의 최고의 도서”, Lit Hub 선정 ”2020 년 가장 기대되는 책”
- \* "쿨한 동시에 따뜻하고 섬세한 견고함으로 점차 빠져들게 되는 책" - 「뉴욕 타임즈 북 리뷰」
- \* “아름다운 정신에 대한 영화로운 초상, 가장 지적이면서도 마치 절벽 가장자리에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을 주는 책.” - 제이미 콰트로

소설가이자 이 책의 저자 사만다 하비는 아주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매일 밤마다 긴긴 시간 계속되는 밤의 여행을 떠나야 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이 불면증은 심하면 40시간에서 50시간까지 지속되었다. 저자는 이 회고록에서 자신의 불면증을 불면을 유도하는 '케케 묵은 감정의 발굴 과정'으로 보았다. 마치 물 밑 깊숙히 가라앉은 수많은 단서들을 찾아내면서 진행되는 철학적 탐정 이야기와 같은 책이다.

과연 저자는 어쩌다 40년간 지속되었던 숙면의 행복에서 깨어나 불면의 세계에 빠지게 된 것일까? 저자의 이 불면증은 오랫동안 간질 발작으로 고생했던 한 사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부터 시작되었다. 그의 죽음 후, 슬픔에 빠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어느 날 밤 저자는 컴퓨터를 켜고 한 검색 엔진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는 어떤 과정을 거쳐 분해되는지 살펴보았다. 그 후, 저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생각과 때마침 찾아온 폐경기를 포함해 도저히 알 수 없는 다른 심리적 요인들 때문에 말그대로 잠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이에 따라 찾아온 수면 부족은 건강에 실질적 위협 요인이 되었고 잠들지 못하는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을 일으키며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했다.

저자는 잠 못드는 밤 시간 동안 복잡한 세상 속을 파고 들어갔고 왜 그렇게 많은 책들과 TV 프로그램이 제목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었는지, 정신분석학자 라캉이 언급한 바 있는 시가 정말 선 (Zen)이 그랬던 것처럼 죽음에 관한 확신을 주는지, 자신이 왜 데이비드 보위의 광팬이자, 왜 현금인출기에서 훔친 돈으로 결혼 반지를 산 한 남자에 대한 단편 소설을 쓰게 되었는지, 아마존 열대 우림에서 추상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현재에만 집중하며 살고 있는 피라 족에게는 과연 불면증이 존재 하는지, 혹시 자신의 유전자에 불면증과 관련된 유전 요인이 새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등등 온갖 의문 속에 빠져 살았다.

자신의 고뇌에 대한 기록이자, 소설, 사회, 심리의 분야를 넘나들고 있는 이 창의적이고도 실험적인 책에서 그녀는 불면증에 대해 어둡고도 재미있으며 지적으로 풀어나가며, 마치 버지니아 울프처럼 기억과 글쓰기, 죽음, 삶에 대한 의지에 대해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다.

#### <저자 소개>

사만다 하비 (Samantha Harvey)는 『The Wilderness』, 『All Is Song, Dear Thief』 및 『The Western Wind』의 저자이다. 그녀는 Bailey 's Prize 와 Man Booker 상 후보에 오른 바 있으며 James Tait Black Award, Orange Prize, Guardian First Book Award, Walter Scott 상을 수상했다. 그 중 『Wilderness』는 2009 년 Betty Trask Award 에서 수상작이었다. 현재 그녀는 Bath Spa University 의 문예창작과 석사 과정 튜터로 근무 중이다.

제목 : MONSTERS AND MONARCHS

가제 : 연쇄 살인의 역사

저자 : Debora Felton

출판사: University of Texas Press

발행일: 2020년 가을

분량 : 274 페이지

장르 : 역사



**\* 출판 역사상 최초로 고대의 연쇄 살인 사건과 현대의 연쇄 살인 사건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한 내용을 담은 책**

찰스 맨슨, 에드 가인, 테드 번디, 제프리 다머 등 현대 사회가 이러한 끔찍한 연쇄 살인범들의 이야기에 매료되어 있다는 사실은 결코 비밀이 아니다.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한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와 가상 및 실제 연쇄 살인범에 대한 자극적인 영화적 묘사는 언제나 우리의 모든 이목을 집중시킨다. 알고보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연쇄 살인은 현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고전학 전문 교수인 저자는 어느 날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문헌에서 현대의 연쇄 살인 사건과 놀랍도록 비슷한 특성과 행동을 갖고 있는 당시의 살인자들과 살인 사건에 대해 알게 된다. 고대 살인범들 역시 젊은 여성이나 노약자를 특정 피해자로 삼았다. 또한 이 살인들 중에는 성적인 범죄와 연관되어 있거나 희생자의 신체를 절단하는 행위에 집착했던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어떤 살인자들은 희생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트로피 삼아 자신이 원하는 은밀한 곳에 전시해 두기도 했다. 때문에 고대 작가들 역시 이러한 살인 사건을 바탕으로 연쇄 도끼 살인이나 연쇄 독살 사건 혹은 시체의 머리만 모아둔 살인 사건을 소재로 이야기를 쓰기도 했다. 또한 마이클 뉴턴의 연쇄 살인범 백과 사전, 해럴드 슈체터의 연쇄 살인범 파일과 같은 책들 역시 현대의 살인범들과 비슷한 중세 시대의 살인 범들이나 고대 로마 시절의 살인범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가울 로쿠스타와 같은 연쇄 독살범, 네로 황제와 같이 피에 굶주린 황제를 연쇄 살인범의 원형적 인물들로 제시하고 있다. 즉, 고대에 있었던 살인 사건들 역시 현대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볼만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스, 로마인들은 대체 왜 이런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썼으며 우리는 이 시절에 일어난 연쇄 살인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여 현대를 조명할 수 있을까?

이 책에서 데보라 펠튼 교수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와 역사를 들여보며 2, 3천년 전에 살았던 연쇄 살인범들의 존재와 행동적 특징에 대해 살펴본다. 연쇄 살인범에 대해 다룬 기존의 많은 책들이 연쇄 살인이라는 특정 범죄가 현대 사회가 낳은 병폐일 뿐만 아니라 특정 유형의 범죄가 광대한 범위에 걸쳐 확산된 것임을 가정하는 것으로 보아 고대 세계에서 일어난 연쇄 살인 사건

을 검토하는 일은 현대의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한 크나큰 이해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녀는 이러한 연구가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점점 더 연쇄 살인범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재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사실 이 책이 유독 흥미로운 이유는 지금껏 아무도 고대 살인 사건과 현대의 연쇄 살인 사건의 연계성에 대해 조사했던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살인 사건과 관련된 고대의 흥미로운 이야기들과 최근 일어난 살인 사건들에 대한 최신 연구를 비교함으로써 연쇄 살인의 특성과 그 놀라운 계보에 대해 따져보는 책이다

### <목차>

서문

- 1 장 : 고대의 연쇄 살인범 - 정말?
  - 2 장 : 그들은 무엇을 하는가?
  - 3 장 : 왜 그랬을까
  - 4 장 : 살인적인 그리스 지붕 타일 그리고 기타 살인자 문제들
  - 5 장 : 살인과 로마 시민들이 누렸던 이점
  - 6 장 : 연쇄 독살 사건 : 널리 사용되는 살인 방법
  - 7 장: 헤라클레스와 사람 사냥꾼
  - 8 장 : 테세우스와 고속도로 살인자
- (이하 생략, 총 13장으로 구성)

### <저자 소개>

데보라 펠튼 (Deborah Felton)은 매사추세츠 애머스트 대학교의 고전학과 부교수로 신화 및 괴물 연구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그녀는 저서 『Haunted Greece and Rome: Ghost Stories from Classical Antiquity』를 포함해 세계의 다양한 민속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으며 50 차례가 넘는 강의와 컨퍼런스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그녀는 비평 및 역사 연구 저널의 편집 자문 위원회 회원과 『Journal of the Fantastic in the Art』의 편집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목 : THE NEW CHILDHOOD

가제 : 유튜브 보며 자라는 아이: 디지털 시대의 육아 솔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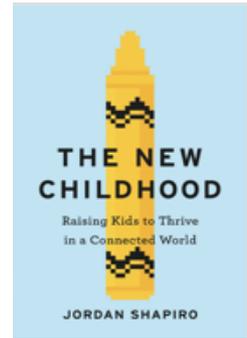
저자 : Jordan Shapiro

출판사: Yellow Kite

발행일: 2019년 1월 10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육아, 과학기술



\* "저자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 사용 시간에 대한 최악의 두려움을 최신 기술을 이용해 어린 시절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흥분으로 바꾸어 놓았다." - 텔레그라프

\* "우리의 생각을 자극하는 대담한 책. 드물게 현재 미디어 환경에 대해 고무적이고 낙관적인 관점을 던져주는 책" - 버라이어티

우리 사회는 언제나 새로운 도구를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왔다. 이는 우리 인류 역사에서 아주 일반적인 흐름이었다. 인간의 사고는 항상 변화해 왔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사고 방식에 걸맞는 동시에 세상과 새롭게 교류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개발해왔다. 도구를 사용하고 통제하는 주체는 언제나 우리 인간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창조한 것들에 대해서조차 원초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로봇들의 반란, 클론들이 일으키는 전쟁, 언제나 최악의 결과만 낳은 시간 여행 같은 인기 SF 영화 소재들은 인간의 독창성이 결국 우리의 우월성을 뛰어넘는 위협적인 존재들을 만들어 낼지도 모른다는 인간 내면 깊은 곳의 공포를 드러내는 가장 적합한 예시들이다. 뿐만 아니라 프랑켄슈타인, 터미네이터, 골렘, 이카루스 등 시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공통점을 가진 이 존재들 역시 현재 비디오 게임과 디지털 문화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똑같은 테크노포비아 (technophobia, 과학 기술 공포증)를 상징하고 있다. 유명 저널리스트인 마크 쿨란스키는 이러한 현상을 '기술에 대한 오해'라고 부르며 기술이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생각은 잘못된 통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물론 기술적인 큰 변화로 인해 기계가 우리의 삶에 새로운 행동 양식을 낳고 있으며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쿨란스키의 주장에 따르면 기술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 우리 사회가 개발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기술은 촉진제일뿐이라는 것이다.

세계 정책 및 교육계에서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심리학 박사인, 저자 조던 샤피로 박사는 기술에 대한 공포는 우리의 일상 생활과 가정에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으며 특히 요즘 들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두고 부모나 양육자와 자녀 간의 관계에 가장 큰 갈등 요인이 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저자는 이러한 시점에서 기술에 대한 부모들과 양육자들의 태도부터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현대의 육아에서 스크린 타임은 절대적인 악이며 이에 대한 유일한 대처법은 언제나 '제한'과 '금지'였다. 하지만 심리학자이며 교육계의 선구자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한 저자는 교육, 철학, 신경 과학 및 심리학 분야의 최첨단 연구를 통해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두려움과 과거에 대한 향수가 우리 아이들이 최선의 이익을 누리는데 얼마나 큰 방해가 되고 있는 지 보여준다. 그는 소셜 미디어 및 스마트 폰 이용법을 재구성하여 보다 진보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이 새로운 디지털 세계에서 얼마나 긍정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여러 도구들을 슬기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 알려준다. 무작정 신기술에 대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최첨단 기계와 디지털 문화의 주인이 되어 자신들의 미래를 새롭게 가꾸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 <목차>

서문 : 플라톤은 게이머가 되었다.

#### 1 부 : 자기 자신

- 1 장 새로워진 이야기 시간
- 2 장 새로운 놀이 시간
- 3 장 새로운 모래통

#### 2 부 : 집

- 4 장. 새 가족
- 5 장. 새 난로
- 6 장. 새 사춘기

(이하 생략, 총 4부 12장으로 구성)

### <저자 소개>

조던 샤피로 (Jordan Shapiro) 박사는 세계 정책 및 교육 분야의 세계 최고 리더이다. 그는 Sesame Workshop의 Joan Ganz Cooney Center의 선임 연구원으로 디지털 기술, 아동 발달 및 가족 생활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그는 Temple University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Forbes의 글로벌 교육 및 디지털 게임에 대한 칼럼을 썼다.